

# 학업중단 위기학생 교육기회 제공

### 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6~30일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대안교육을 수행할 위탁교육기관을 찾는 데 유망한 기관을 선정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학생 대상 3개월 이상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가능한 교육시

설·프로그램·학생 지도 인력 등이 갖추어진 기관이어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희망하는 곳은 수탁신청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26~30일 전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063-903-4600, 4604)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5~6일 서류심사, 1월 9~13일 방문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결과를 1월 20일 도교육청 홈

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탁 대상 학생은 학교 부적응, 다양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전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나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생 위탁도 가능하다.

위탁교육기관에서는 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또 위탁학생 심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필요 경비

심의 등을 위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여기다 위탁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년초에 교육계획서, 학년말에 위탁교육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치유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통해 학교 복귀를 돕고자 한다"면서 "대안교육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해상풍력 실증 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 군산대-대우건설,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 23일 대학본부 제1 소회의실에서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원)과 해상풍력 실증기술 및 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우수한 풍황자원과 풍력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군산지역에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풍력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의 이장호 총장 이호근 교무처장, 장민식 산학협력단장 이상일 해상풍력연구원장, 김동현 풍력에너지학과 학과장이 참석했고, 대우건설에서는 김용해 토목사업본부장 반준성 담당 임원, 이상현 풍력사업IT팀장 조진영 부장, 안희범·하승민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해상풍력 실증기술 과제 개발발굴 및 참여, 실증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풍황측정 장비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역대학과 경제 기여를 위한 지역 특화형 풍력 사업화 모델 개발 해상풍력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해상풍력 실증기술 및 사업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군산=김관민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22일 정읍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 교육감, 정읍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주제 학부모 특강

### 문해력 향상 방안·스마트기기 보급 등 질의·응답 이어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22일 정읍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금희)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서 교육감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소개하고 △청렴 △민주 △인권 △혁신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며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학력신장 방안을 묻는 등 이날 특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문해력이 낮은 것 같다"면서 "문해력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학부모는 "스마트기기가 빨리 보급돼 저녁에 예습과 복습 시간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돌봄 연장 방안, 학생 체력 증진 방안, 나후 시설 개선 방안 등을 질의했다.

서 교육감은 문해력 향상 방안과 관

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읽고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했고,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내후년까지 100%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교육감의 정읍 방문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알리면서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는 시·군 순회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학부모 특강에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정읍 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우수 인재 양성, 대학의 사명"

### 신임 박성태 원광대 총장, 취임 봉고식에서

원광대학교가 제13대 학산 박맹수 총장 취임 및 제14대 성산 박성태 총장 취임 봉고식을 지난 23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박성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상이 급변해도 대학이 갖는 기본적인 사명은 명확하고, 그것은 바로 교육과 연구 봉사"라며 "합질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지향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역량·표현·실현을 중시하는 교육혁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현장 연구 및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연구·산학의 혁신과 더불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창업역량 강화와 광역권 인성 거점 추진,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대학병원의 건진성 회복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견직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건학이념을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과제 제시하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선진적 방안을 수립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교



원광대학교가 제13대 학산 박맹수 총장 취임 및 제14대 성산 박성태 총장 취임 봉고식을 23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취임사를 하고 있는 박성태 총장의 모습이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대학, 지역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대학, 그리하여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지난 11월 공개토론회 및 구성원 평가 후 원광학원 이사회를 거쳐 제14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박 총장은 지난 1985년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돼 원광교 교수협의회 회장, 경상대학장, 경영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한국경영학회 회장, 대한경영학회 회장,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박 총장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4년간 원광대의 발전을 견인한다.

/뉴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 거미줄과 같은 고분자 소재 개발

### 직류 고전압 주면 주위 전기장 형성... 종이 등 달라붙게 해

영화 속 주인공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이용해 건물을 이동하기도 하고, 악당에게 거미줄을 쏘곤 경에 빠트리기도 한다.



박성준 교수



김시연 대학원생

전도성을 갖는 고분자 소재를 개발했다. 이 고분자 소재는 서로 교차된 구조로 배열된 액체금속 전자회로에 직류 고전압을 주면,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어 주변 물질과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해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달라붙게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액체금속 전자회로 주위에 형성된 전기장의 변화를 통해 실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는 특성도 갖는다.

이같은 개발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성능과 개별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해 가능한 소프트 로봇이나 웨어러블, 인공피부 등 미래형 전자소자 구현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연 모사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춘 소프트 로봇 시스템을 제시함과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소자와 센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체를 집을 수 있는 유연 전자 집게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 승진 65·전보 321·신규임용 32명 등 총 553명 규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65명(5급 7명, 6급 31명, 7급 22명, 8급 5명), 전보 321명(3급 1명, 4급 8명, 5급 12명, 6급 98명, 7급 132명, 8급 65명, 9급 7명), 신규임용 32명 등 총 553명이다.

먼저 행정국장에 김형대 부이사관(현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이 전보 발령됐으며, 행정과장에 조철호 서기관(현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 안홍일 서기관(현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 최정애 서기관(현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

자 과정),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최원창 서기관(현 행정과장)이 전보 발령됐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본인 희망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됐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발령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이 고려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임자를 배치해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호남권역 청년 창업문화 확산

### 전북대 등 참여 예비 학생창업자 네트워킹데이 성료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호남권역 청년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호남권역 예비 학생창업자 네트워킹데이(2022년 M.O.V.E.)'를 개최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대학의 창업동아리와 GIST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I-Corps 사업 참여 대학생 120여 명이 함께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조달청 활용 창업방안 안내, 우수 청년 창업자들의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 간의 우수성과 공유와 교류를 위한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파티와 전북대 창업동아리 연합성과 교류회 그리고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창업교육센터, 실험실 창업팀은 학내 학생창업 동아리 2개 팀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주요 성과 및 시제품 소개,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자체 경진



대회 형태로 진행, 우수성과를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성공적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학생 창업자가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트렌드 사례, 기술사업화 전략 등을 담은 내용의 강연도 진행해 예비 창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행사는 호남권의 예비 학생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와 주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